

[제2019-44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9. 8.14(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전시		
연락처	323-936-3014/tammy@kccla.org	담당자	Tammy Cho		

2019 LA Art Project 4: <제29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개최



- ▶ 전시명 : 제29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 ▶ 전시기간 : 2019.8.22(목)-8.30(금) / 개막식 : 2019.8.22(목) 19:00-21:00
- ▶ 미주한인서예협회 시연행사 : 2019.8.22(목) 18:00-19:00
- ▶ 장 소 :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5505 Wilshire Blvd. L.A., CA 90036
- ▶ 주최 : LA한국문화원, 미주한인서예협회
- ▶ 개막식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전시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 ▶ 전시장 개장 : 월-금 10:00 - 17:00 / 토 10:00 -13:00
- ▶ 불임 : 전시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故 하농 김순욱, 교학상장(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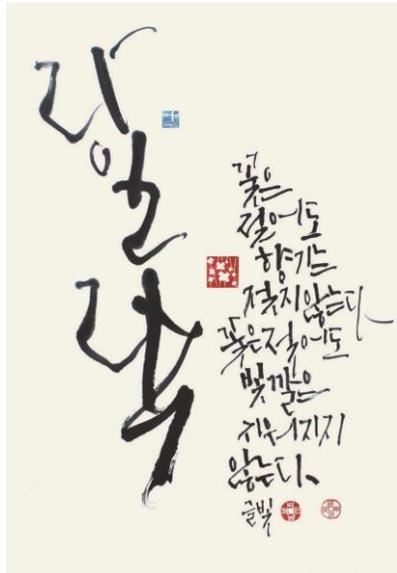
故 우당 유병희, 민족자존(행서)



목우 정기호(木友 鄭基浩), 사무사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2019년 8월 전시로, "제29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The 29th Annual Exhibition of Korean-American Calligraphy Association)" 전시회를 8.22(목) 부터 8.30(금)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LA한국문화원과 미주한인서예협회(회장 한상)가 함께, "화합과 재도약"이란 주제로 한국서예의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47여점의 작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1990년 창립된 이래 지난 29년 동안 서예협회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많은 원로작가들 중 이미 작고하신 원로작가 두분(고 김순욱 작가, 고 유병희 작가님)의 작품을 초대작으로 선정 전시하여 서예인들은 물론 서예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추억할 기회를 마련하였고, 고국의 유명 한글 서예 및 서각 작가들의 작품을 특별 초대하여 고국과의 유대와 교류를, 또 미국내 이민 2세대인 30대 청년 서각 작가를 초청하여 젊은 층들의 서예전 참여를 시도해 보았다.



글빛 박혁남, 라일락



자림 장경자, 조(鳥)(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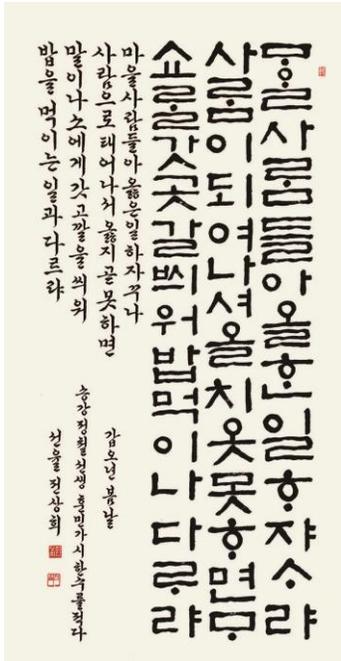


송연 이영애, 사자성어 모음(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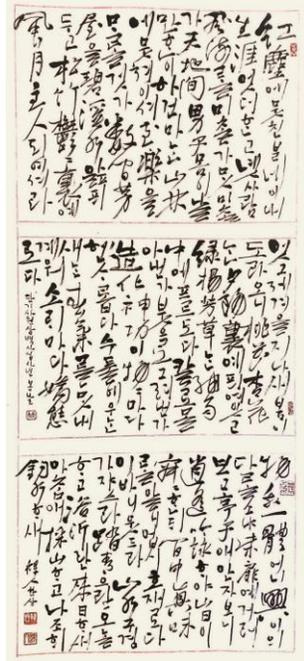
또한, 서예는 같은 한문권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만의 특유한 문화예술 장르이다.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세종대왕께서 15세기에 만드신 한글로 이루어진 한글서예가 더해져 아주 독특한 서예술이 발전 되어 왔다. 더구나 21세기 IT 시대를 맞아 한글서예는 다양하게 발전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서체들인 판본체 궁체 민체는 물론 국한문 혼용 및 그를 활용한 한글 캘리그래피가 다양하게 개발 출품되고 있다.

서예는 예로부터 법고창신(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창조하다)을 기본정신으로 창작하는 대표적 서예술이다. 옛것을 익히는 과정에서 서권기 문자향으로 표현되는 정신수양의 내공을, 그리고 창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전각 서각 현대서예 등 표현기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예술활동이다. 따라서 법고에 충실한 작품과 창신에 중점을 둔 작품 그리고 그 둘 모두를 아우르는 작품 등도 전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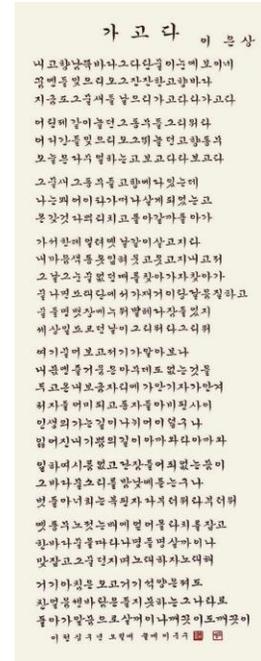
또한, 2019.8.22(목) 18:00-19:00까지는 전시개막식에 앞서 90대의 원로 서예가 송연 이영애 작가와 전주세계서예비엔날레 초대작가이자 서예협회 회장인 나인 한상 작가 등이 참여하는 한시 해설 및 서예시연 행사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 서예를 배우고 또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선울 전상희, 송강 정철의 훈민가



나인 한 상, 상춘곡



송원 이준수, 이은상 시'가고파'(궁체)

LA한국문화원의 박위진 문화원장은 "올해에는 문화원 서예전 전시와 함께 문화원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LA카운티미술관(LACMA)에서도 특별기획전 '선을 넘어서: 한국 글씨 예술' 대규모 서예전도 개최되고 있어, 우리의 서예 역사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라며 문화원과 LACMA의 서예전 모두를 감상하는 것을 적극 추천하였다.

한상 미주한인서예협회 회장은 “올해로 2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서예전시는 그동안 우리협회가 쌓아올린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게 됩니다. “화합과 재도약” 정신을 바탕으로 멀리 이곳까지 이민와 살아가며 여러가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경비하고 서예를 지켜온 작가분들의 정성껏 만드신 서예작품들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행복해 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2019 LA Art Project 네번째 전시인 <제29회 미주한인서예협회전 (The 29th Annual Exhibition of Korean-American Calligraphy Association)> 전시는 2019. 8.22(목) 19:00 개막식을 시작으로, LA한국문화원 아트 갤러리에서 8.30(금)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